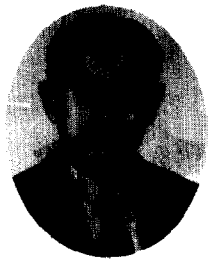
나의 회고



우 형 주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명예교수
(제10 · 11대 회장 역임)

광복직후의 그 혼란속에서 우리 선배들의 힘으로 1947년 7월 9일에 「조선전기학회」가 창립된지 만 40년을 맞이하였다. 초창기 학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선배 및 동료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올리며 지난날의 기억을 되살려 보고저 한다.

1961년 이종일 회장때 재무이사로 발탁되어 나의 20여년에 걸친 학회생활은 시작되었다. 당시 이천전기주식회사(장병찬 회장)2층 사무실에서 석만기선생으로부터 인수받은 회계장부에 적힌 총 금액은 328,371 원으로 이중 24만원이 조선전업에서 매월 2만원씩 주는 보조금이었다. 이에 예산확보책으로 이사회에서 이사진과 일반회원들의 회비자진납부, 특별회원의 찬조를 호소하여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특별회원을 위한 연말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회현황보고와 학회발전을 위한 의견교환을 나눔으로써 학회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학회활동도 점점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대한전기협회 발족시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정관 작성과 회관건립의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는데 정관작성에는 강 석규이사의 희생적인 노고가 컸었다.

1966년 3월에는 전기학회의 심볼을 공모하여 오늘날 학회마크를 채택하였고, 동년 5월에는 전기관계법령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법령을 심의, 전기용품규격 (전) 案을 상공부에 제출하여 법제화하게 한 바 있다.

1967년 4월 회장으로 취임하여 선배님들을 이사로 모시고 보다 나은 학회발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동년 7월 22일 전기협회건물이 완성됨에 따라 학회 사무실을 이천전기건물 2층에서 전기협회로 이전하였다.

한편 경제개발 제2차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전기공업의 급속한 발전이 전망되어 「전기공업육성책」 제1·2집을 대한 전기 협회 찬조로 당시 한만춘 부회장과 공동으로 발행하였으며, 1969년 2월에는 배전전압승압에 따르는 보안문제를 학회 주관으로 각 대학 교수 공동으로 조사 연구 보고한 바 있다.

1969년 4월 회장 재취임시에는 학회운영을 젊은 세대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실무이사를 젊은 교수들로 대폭 개편하였다.

그리고 당시 상공부장관 박 충훈씨를 방문하여 산교육을 위한 공과대학 교수들의 현실참여를 건의, 하기 휴가중 각 대학 전기전자과 교수 및 학생들의 공장실습과 현장지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70년 2월에는 전기공학 편람을 발행하였는데 이때는 한양대학교 오영돈 교수의 노고가 매우 컸다.

1970년 9월에는 국제전기전자 학술회의를 대한전기학회, 전전공학회, KIST 공동주최로 개최한 바 있는데 이때 참가인원은 총13개국 373명이었으며 발표 논문은 92편(국내 33편, 국외 59편)으로 당시로는 대규모의 국제학술회의였다. 이 회의에 김 완희 박사가 미국 주재 부회장으로 참가하게 됨으로서 우리나라 전자공업진흥의 문이 열리게 되었음은 주지할 일이다.

그 후 학회장을 물러난 뒤 1974년 4월 학회의 창립과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전기계 선배님들의 모임인 전우클럽을 창립하였다.

이제 학회도 장년의 원숙기에 들어섰다. 1961년 재무이사 취임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자라나 현재는 1억 6,500만원의 예산과 10개의 연구회를 갖는 국내 최고의 학회로 성장하였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학회와 회원 여러분의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